

오늘밤 태풍 '솔릭' 복상에 비상

무주군, 긴급대책회의 진행 이동경로 확인 영향 예측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만전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주군은 21일 윤여일 부군수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 농업, 환경산림 등 관련 부서 과장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솔릭'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이에 따

른 영향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조치사항 및 대처계획을 점검하며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일 부군수는 "중형급(중심기압 955hPa, 강풍반경 370km, 최대풍속 144km/h) 태풍 '솔릭'이 22일 제주도 부근을 지나고 23일이면 목포 남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며 "우리 군에도 22일 밤부터 23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바 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현재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내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비롯한 하천감시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해 산간계곡, 하천변에서 야영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의 사전 대피를 유도하고 있으며, 문자발송과 마을앰프 방송, 재해문자전광판을 활용해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송출 하는 등 태풍에 대한 상황전파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민선7기 첫 추경 '경제·일자리·복지' 맹점

장수, 3412억원 편성 제출 예산안 내달 30일 확정

장수군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0일 장수군은 2018년도 2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1차추경)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3,412억원으로 편성해 장수군 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2억원이 증가한 3,1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원이 감소한 283억원이다. 복지분야에 경로당 공기정정기 지원

사업 6억원,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건립에 15억원, 어르신 이마용 지원사업에 2억원 등 총 39억원, 지역개발분야에 장수읍 지중화사업 5억원, 군도 32호선 3억원, 외립~내림 교행로 설치사업 3억원 등 총 3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농업분야에는 계북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12억원, 과수출하박스 지원 8억원, 6월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6억원 등 총 96억원, 문화체육 및 관광분야에서는 장수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우레탄 교체 12억원, 산서동 내생활체육시설조성 3억원, 장수가야 유적토지매입 4억원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복지실현, 농업경쟁력 강화 등 군정 시책을 가시화해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를 맞이해 군민의 뜻을 받들어 든든한 농촌, 따뜻한 복지를 구현해, 예산 4천억 시대의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진안서 지역중심 활동 위한 토론회 개최

(사)전북도강살리기추진단(이사장 김택천)과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대표 원봉진)는 21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옛도랑복원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역별 예산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강, 하천, 도랑의 문제를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논의해 지역 중심의 강 살리기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북대학교 김세훈 환경공학 박사의 마을 지천 및 하천의 수질보전 활동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계하고 주민 주도적 도랑관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옛도랑 복원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진안군도 강살리기추진단 김택천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한기 전북도의원,



전북도강살리기추진단과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는 21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강살리기 토론회를 가졌다.

진안군의회 강은희 부의장, 김요섭 진안군청 환경과장,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오문태 상임이사,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 원봉진 대표,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 박대진 차장,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택천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도랑의 주민 관리방안과 관리 사각지대 도랑관리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앞으로 더 효율적인 도랑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지역별 환경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축제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 열 올린다

장수, 전주·군산서 부스 사과·부채 등 나눔 인기

장수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최근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축제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제12회 짝을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군민을 넘어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전라북도를 찾는 내·외국인에게 축제 홍보 위해 진행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순창군과 공동으로 장수사과, 순창 고추장 왕실 진상행렬 행사를 진행했으며, 40여명의 취미대를 동원한 진상행렬과 함께 여름철 부채, 물티슈 무료 나눔행사를 진행해 더운

여름철 방문객으로 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또한 군산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국제노마드페스티벌 행사에서 장수군 부스를 운영해 이벤트존과 기념품 나눔행사를 가지며 많은 외국인들에게 장수 한우랑 사과랑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2018년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지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육성 축제로도 지정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우수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작년 11회축제 개최시 30만명 방문과 행사장 판매액 31억원, 경제효과 98억원이라는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팔걸어

진안 조림지가꾸기 사업 주력 생육 방해 초본·관목류 제거

진안군은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조림목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림지가꾸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생육에 방해되는 초본류와 관목류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생장상황에 따라 조림 후 3년간 실시하게 된다. 올해 진안군 조림지가꾸기 사업량은 총 1,125ha로 그동안 현지 연찬회(3회)를 실시하고, 드론 교육(2회)을 병행하며, 1차 사업 547ha를 8월초에 마쳤다. 8월중 2차 사업으로 578ha를 발주할



계획이며, 매주 2회 이상 드론장비를 활용해 현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림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장 점검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반딧불 배 이순테니스대회

제1회 무주 반딧불 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가 21일 무주반딧불체육관 테니스장을 비롯한 7곳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무주군테니스협회, 무주군 이순테니스클럽이 주관한 가운데 서울 등지에서 팔순부와 고허부, 이순부에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경기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무주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무주군 테니스협회 이상수 회장, 이순테니스연합회 조정용 회장과 시·군 테니스 동호인 등 4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고장 무주에서 건강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 행복하다"라며 "어느 대회보다도 즐겁고 안전한 대회, 본인 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선수들은 "대회 덕에 경기도 치르고 무주도 볼 수 있어 좋다"라며 "9월 1일부터는 반딧불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가족들과 꼭 다시 와봐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용경)는 21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 손상으로 뇌 기능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 장애가 발생해 상당기간 지속되는 증상으로 이를 예방·실천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이영훈 교수가 뇌졸중 원인, 종류 및 전조 증상, 뇌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 등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로는 뇌혈관질환을 차지했으며 최근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관인 뇌는 혈관이 파손되거나 막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한쪽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이 발생한다"며 "일상생활 속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지령중 휘트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기아드 지령 휘트
동계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령중 휘트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